

불경기에 가뭄까지 가세 목마른 생약업계

인진 익모초 등 풀잎약재 출하없어 물동량 귀 천궁 당귀 작약 상보합세, 맥문동은 큰폭 하락

한여름에 성큼 다가선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고 한약시장은 지리한 불경기의 늪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래 부진한 가운데 국산 한약재 시세는 뒤늦게 오름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 상인들 말에 따르면 "지난 봄에 올랐어야 할 국산 한약재 시세가 식품으로 대량 반입된 수입약재 영향으로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 불법 수입약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식품용 수입약재의 유통이 주춤한 때문"이라는 것.

특히 황기, 당귀, 천궁 등 보약재료로 소비량이 많은 품목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오름세 경향이 뚜렷하며 앞으로 당분간 하락세는 없을 것 이란 분석이다.

박하, 인진, 익모초 등 풀잎 약재들의 경우 이달부터 햇것 출하가 시작될 시기. 그러나 올 봄 심각한 가뭄 영향으로 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산지에서 풀잎약재들을 베지 못하고 있다고. 특히 백지, 방풍, 산약 등 당년생으로 올 봄 파종한 약재들의 경우 이번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뭄 때문에 파종한 종자가 발아되지도 못하고 그대로 말라죽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경북 안동의 한 상인은 "이러다가는 올 가을에 약이 없어서 장사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기자 5월말 현재 경동 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구기자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지난 4월보다 다소 떨어진 1만2천원 선이다. 최고 상품은 근당 1만3천원 선이나 물량은 귀.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중품의 경우 1만1천~1만2천원 선이며,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물건들은 9천원 선에도 거래된다고. 수입 구기자는 근당 1천2백~3천5백원 선이다. 근당 3천5백원 선에 거래되는 수입산은 국산 상품과 거의 비슷한 물건. 국산 구기자 시세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백지 얼마전 키퍼품으로 반입된 수입산 백지가 시중에서 거의 소진되면서, 근당 (6백g 기준) 3천2,3백원 선으로 하락했던 국산 백지 시세가 다소 오름세.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국산 백지 시세는 근당 3천7백원 선이다. 가뭄 영향으로 백지 생산량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 속에 시세 당분간 상보합세 전망.

작약 소폭의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재배면적과 생산량 급감으로 물동량이 감소한 때문. 그 간의 재고량이 많긴 하나 상품은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때문인지 품질이 괜찮은 것은 대폭 오름세

를 보인 반면 하품의 경우는 별반 시세차가 거의 없다. 5월말 현재 거래되는 작약 상품은 근당(6백g 기준) 6천5백원 선, 중품은 4천5백원 선으로 지난4월 초 시세보다 1천원 폭으로 꺾춤 뛰었다.

길경 상승세. 불 길경 출하량이 거의 없는 관계로 통길경을 비롯해 절길경 국산 물량이 귀하다. 묵은 길경(절품)이 근당(6g 기준) 3천원 선에 유통되고는 있으나 수입산과 섞였을 우려 때문에 실제 거래는 부진한 상황.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국산 통길경 시세는 지난 4월 초 시세인 6천5백원 보다 무려 2천원 폭으로 오른 근당 8천5백원 선이다. 지방 산지에서 근당 8천원에도 통길경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고. 절길경은 3천2백(절) 선이다. 오는 8,9월 햇것 출하가 까지는 국산 통길경 시세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당귀 5월말 현재 토당귀 시세는 상보합세. 지난 4월초 근당(6백g 기준) 6천5백원선(통)이던 국산 토당귀 시세가 8천원(통), 7천5백원 선이던 절품 토당귀는 9천2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국산 물량이 부족했는데다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입당귀가 국산과 달라 시중에서 큰 인기가 없기 때

문. 황기와 함께 보약재료로 소비량이 많은 당귀는 국산 물동량이 부족하고 수입산과도 차별화 돼 있어 시세도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수출용으로 많이 나가는 일당귀 시세도 근당 6천5백원 선으로, 5천5백원 선이던 지난 4월 초보다 올랐다.

산약 물량부족으로 최근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 지난 4월초 근당(6백g 기준) 1만8천5백원 선이던 생산약은 2만원 선에, 4천5백원 선이던 식산약은 6천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수입산은 생산약이 근당 4천8백원선, 식산약은 2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맥문동 햇것 출하기에 접어들면서 맥문동 시세 대폭 하락세 보이고 있다. 산지인에 따르면 "작황은 그런대로 좋아 수확량도 예년 비 증가했고 품질도 지난해 보다는 나은 편"이라고. 그러나 햇것 출하가 시작되면서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자 농가에서는 너무 낮은 시세 때문에 출하를 꺼리고 있는 상황 이란다. 5월말 현재 경동약령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맥문동 시세는 청양산이 5천7백원(거심), 4천2백원(막막) 선이며 밀양산은 그보다 다소 높은 7천원(거심), 5천원(막막) 선에 거래되고 있다. 국산 맥문동 상품과 비슷한 수입산이 근당

2천5백원 선. 수입산과의 혼용 유통이 국산 시세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미자 물동량 부진으로 상보합세. 지난 4월 초 근당(6백g 기준) 2만5천원 선이던 국산 오미자 시세가 최근 들어 오름세. 5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 도매시세는 2만8천원 선이다. 중국에서도 오미자 물동량이 귀해 수입산 오미자도 근당 7,8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오미자 시세가 이처럼 상보합세 경향을 띄는 이유는 작황부진으로 물동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 또 식품원료로 오미자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식품회사로 출하되는 생것 비율이 많아진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의 오미자 작황도 그리 좋지 않을 것이란 분석 속에 오미자 시세는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택사 5월말 현재 경동약령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택사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통자가 4천6백원, 절품은 5천원 선으로 4천2백(통), 4천7백원(절) 선이던 지난 달보다 소폭 오름세다. 물량이 충분한 데도 이처럼 소폭 오름세 경향을 띄는 이유는 산지에서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 식품용으로 반입된 수입산은 외형상 국산과는 많이 달라 유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천궁 식품원료로 대량 반입된 수입 천궁 영향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국산 천궁 시세가 수입물량이 어느정도 소진된 5월말 현재 소폭 오름세 경향을 띄고 있다.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토천궁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1만8천5백원(절) 선이다. (문정희)

오미자 흉작, 시세 폭등

0...중국에서 최근 원지와 황금 시세가 하락세다. 중국에서는 원지와 황금이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나누어 생산되는데 재배면적 증가로 올 봄 수확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국내 유통시세도 근당(6백g 기준) 2천5백원 선이던 지난 4월 초보다 다소 내린 2천원 선에 유통되고 있다. 반면 북방의 오미자는 최근 값이 많이 올라 인민폐로 45~50원 정도로 지난 연말 시세인 25원 보다 두배로 꺾춤 뛰었다. 지난해 이상기변으로 오미자가 흉년이 든데다 국내 상인들이 오미자를 식품용으로 대량 반입해 간

중국약재 시장동향

있으며 이는 내몽고 지방의 사막화 현상에서 원인을 찾게 되고 자연보호차원에서 약재 채취를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 이같은 중국정부의 야생약초 보호정책 때문인지 수년동안의 중국약재 가격동향을 보면 재배약초에 비해 야생 채취 약초의 시세가 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거나 상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감소처럼 중국정부에서 독점생산되는 약초는 매점매석이나 또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경향이 뚜렷해 꼭 필요한 야생약재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산기반 마련 등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때문이라고. 국내 유통시세도 폭등했다. 지난 3월말까지만 해도 근당(6백g 기준) 4천원 선이던 수입 오미자 상품시세가 5월말 현재는 근당 7,8천원 선을 호가하고 있는 것. 지난 겨울 북방의 기온이 하강한 관계로 행인, 도인, 천초, 오수유 등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남방약재인 천궁, 맥문동 등은 재배면적 증가로 시세가 지난해 절반 수준이라고.

야생약초 관리 강화 허가 없이는 취급 못해

0...유전자원 보전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야생 채취약초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야생약초의 무분별한 채취를 엄격히 통제하는 대신 재배단지를 조성, 계획생산을 시도하고 있는 것. 최근 세계적으로 그 사용범위가 증가추세인 감초를 비롯, 육종용, 동충하초, 마황 등의 약재 구입, 가공에 관한 제도가 완전 허가제로 바뀔 계획이다. 과거에도 허가제로 일정량만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해 왔지만 올부터는 생산에서부터 가공, 구입, 운반, 수출에 이르기까지 정부 허가 없이는 취급할 수 없도록 관리 제도를 강화기로 한 것. 이는 부족한 자원 보호는 물론 계획생산을 통한 이익극대화 및 효율적인 수급관리 차원으로 보여짐. 마황은 잘못 복용할 경우 약물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원형으로의 수출을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자연산 꾸준한 상보합세

0...주로 내몽고 지방에서 생산되는 육종용의 경우, 이 약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땅을 깊게 파야하고 또 파고 나서는 이를 매우지 않아 그곳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 약재의 채취를 법으로 금하고 있는 실정. 감초도 같은 경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서는 매년 황사바람 때문에 큰 골머리를 앓고